

제2의 석유 자원 보유국 이라크

UN은 최근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결의하고 무기사찰단을 입국시켜 조사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라크는 지난 '90년 걸프전 이전 하루 500만 배럴을 생산하는 주요 산유국이었으나, 패전 이후 석유생산은 하루 150만 배럴 정도로 국민의 생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제한되고 있다.

또한 이라크에 대한 압박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기업들은 UN의 승인, 더 나아가 이라크에 대한 금수조치 이후를 노리고 이라크의 석유, 천연가스 및 전력산업 건설에 뛰어들기 위해 이라크측의 절박한 외부지원 필요성을 이용,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라크는 확인매장량 기준 1,120억 배럴이라는 세계 제2위의 석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110Tcf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중동지역의 안보문제와 관련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이 자료는 '02.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미국 에너지부 에너지정보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국가별 에너지 분석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이라크의 최근 에너지산업 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편집자주 -

일반 현황

이라크는 '80년대 이후 이란 및 쿠웨이트와 두 차례의 전쟁을 치루었으며, 10년이 넘게 UN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 경제 및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다. GDP는 쿠웨이트 침공 이후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일인당 소득과 생활수준도 전쟁 이전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갔다.



반면, '96년 이후의 석유증산과 '98년 이후의 유가 상승으로 이라크의 실질 GDP는 '99년 12%, '00년 1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01년의 경우는 석유순수출량에 변화가 없었으나, '00년보다 유가가 하락하여 실질 GDP는 3.2% 정도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02년의 경우는 유가는 높았지만 석유순수출량이 급감하여 실질 GDP가 겨우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라크의 현인플레이 수준은 '01년 28%보다 약간 내려간 약25%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상품거래 무역흑자는 UN의 통제 아래 있음에도 약48억\$이다. 외채부담도 심각한 상황인데, 걸프만 국가들과 러시아까지 포함시키면 1,400억\$에 달한다. 또한 이라크는 제대로 된 조세제도도 없고, 재정 및 금융정책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02. 5. 14일 UN안전보장이사회는 "석유-식량 프로그램"(Oil-for-Food) 수정안(PhaseXIII)을 승인했는데, 이라크는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중용도”(dual-use)의 광범위한 상품(군사용 민수용 양쪽 모두 사용가능한 제품) 목록에 들어가는 제품을 구입해 왔다. 상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구매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석유판매 收入金を 지출할 수 있다. 물론 석유수출 收入은 UN의 관리계정으로 입금되고 이라크로의 상품 수출업자들은 이 계정에서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수정안은 '02. 11. 25일 다시 논의된다.

이라크는 지난 몇 년간 다수 아랍국들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예를 들어 '02. 3월 베이루트에서 개최된 아랍정상회의에서 이라크는 쿠웨이트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개입”과 국경 인정을 약속했다. 나지 사브리 이라크 외무장관은 “쿠웨이트의 번영과 독립을 지지하며,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 관계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01. 1월 이집트 및 시리아와 자유무역거래에 서명했고, 동년 8월에는 시리아 수상이 바그다드를 방문했다. 동년 4월에는 이라크의 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것은 최근 수년만에 이루어진 양국의 최고위급 접촉이었다.

그러나 '01. 6월 이라크-사우디간의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우디가 1.65백만bbl/d 용량의 IPISA 송유관에 대한 소유권을 발표했다기 때문이다. 이 송유관은 '90년 쿠웨이트 침공 이전까지는 사우디의 홍해쪽 항구도시인 Yanbu까지 이라크의 원유를 나르던 통로이다. 사우디의 송유관 물수 발표내용에는 가압시설, 저장탱크 및 해상터미널도 포함되어 있다. 사우디의 주장에 의하면 이 송유관은 이라크의 침략행위로 몰수되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라크는 자국에 소유권이 있으며, '02. 5월 이 송유관은 이라크의 “수출용 루트”라고 주장했다.

'91년 걸프전이 끝난 이후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에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했으며, 연합군 항공기의 위협요인이 되는 다양한 목표물에 대한 폭격도 실시해왔다. '98. 12월에는 UN 무기사찰단이 이

라크에서 추방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사막의 여우 작전”이라 명명된 수일간의 폭격을 감행했다. 지난 10. 16일 부시 대통령이 필요시 이라크에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美의회가 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결의안에 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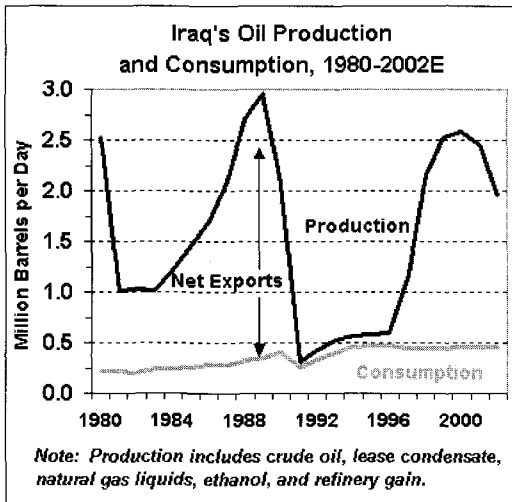
석유 산업

이라크는 1,120억 배럴의 확인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사우디에 이어 세계 제2위를 차지하며, 추정매장량은 2,200억 배럴에 이른다. 그러나 이라크의 실질적 잠재매장량은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수년간의 전쟁과 제재조치로 탐사활동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활한 서부 사막지역에 위치한 유전층에는 대규모의 추가매장량(대략 1,000억 배럴)이 있지만, 탐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의 석유생산 단가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3차원 지진파(3D seismic) 같은 최신 석유산업 기술, 충분한 부품공급, 지난 10여년간 투자 등에서 접근자체가 거의 안되자 이라크는 생산량 유지를 위해 문제점이 있는 엔지니어링 기법(over-pumping, water injection/“flooding”)과 낡은 기술을 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위의 정상적이지 못한 기술 이용과 투자부족으로 일부 유전이 손상되었을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02년초 이라크 석유장관 아미르 라쉬드는 73개 유전 중 24개만이 생산을 하고 있음을 표시한 바 있다. 최근 석유 컨설팅 회사인 세이블트 인터내셔널은 이라크가 유전 손상으로 연간 생산시설이 5-15% 정도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라크에 매장된 석유품질은 API 비중 24° ~ 42° 로 다양하다. 이라크의 主수출원유는 생산활동이 활발한 2개의 대규모 유전 Rumaila와

Kirkuk에서 생산된다. 남부의 Rumaila 유전은 3 종류의 원유 즉, 바스라 표준(API 34°, 유황함유율 2.1%); 바스라 미디엄(API 30°, 유황함유율 2.6%); 바스라 중유(API 22°-24°, 유황함유율 3.4%). '27년 처음 발견된 북부의 Kirkuk 유전은 API 37°, 유황함유율 2%의 고품질 원유를 생산해 왔는데,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API 비중이 떨어졌다고 한다. 또 다른 수출용 원유로는 "Fao Blend"로서 API 27°, 유황함유율 2.9%로서 중질유에 속한다.



이라크의 확인석유매장은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90년 쿠웨이트 침공 이전 이라크 생산량의 약2/3가 Rumaila, Zubair 등 남부유전에서 생산되었다. 게다가 Majnoon 및 West Qurna 등 잠재력이 큰 기타 유전들도 남부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라크 남부지방은 주로 시아파 교도들이 거주하며 인구수에서는 다수파이지만, 소수파이고 수니파인 사담 후세인 측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91년 전쟁 이후 후세인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적이 있다. 남부지방의 석유 인프라 즉 유전, 정유공장, 저장시설, 수송시설 등 많은 부분이 걸프전때 파괴되었지만, 이 지역의 석유잠

재력은 여전히 대단하다.

'99. 9월에는 10년만에 처음으로 50여개의 외국기업들이 바그다드에서 열린 석유 천연가스 기술 전시회에 참가했다. 국별로는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 영국의 기업들이 주류를 차지하였다. 이라크의 고위급 석유관리가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음에도 미국 기업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이라크는 에너지부문에 해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석유부에서는 기존의 개발생산계약(DPCs) 방식을 수정했다. 수정 내용중 중요한 것은 DPCs의 기간을 23년에서 12년으로 축소시킨 점이다. 또한 이라크는 "계약기간 내에 목표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책임생산량을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시켰다.

● 석유 생산

쿠웨이트 침공 및 이로 인한 석유금수 조치로 이라크의 석유생산량은 '90. 7월 3.5백만bbl/d에서 약30만bbl/d로 급락했다. '01년 이라크의 일일 평균 원유생산량은 2.45백만bbl/d로 '00년 2.59백만bbl/d에 비해 약간 감소했다. 이라크 관리들은 당초 '00년 말까지 생산시설을 3.5백만bbl/d까지 확장하기를 희망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라크가 요청한 석유생산장비 공급에 대해서 UN이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라크 측에서 주장했다.

석유산업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바에 따르면, 이라크의 지속가능한 생산설비는 2.8~3.0백만bbl/d 정도이며, 순수출 잠재력은 밀수출까지 포함해서 2.3~2.5백만bbl/d 정도로 보고 있다. '02. 7월 라쉬드 이라크 석유장관은 "지속가능한 현 생산시설은 3.2~3.3백만bbl/d이며, '03년 말까지 외국기업의 지원이 없더라도 생산시설을 3.5백만bbl/d까지 확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라크가 마지막으로 3.5백만bbl/d의 석유생산을 했던 시기

는 '90. 7월 이었다. 중동경제조사지 MEES에 따르면, 이라크도 원유수출량을 UN의 "Oil-for-Food" 프로그램의 제한선인 2.2백만bbl/d으로 맞추고 나머지 80만~90만bbl/d는 국내용, 인접국 요르단 수출용(저가특혜), 밀수출용(시리아 및 터키 루트)으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라크는 남부지방에서 석유저장고에 물주입이 제대로 안되 "물부족"(water cut)과의 전쟁을 치르는 등 석유생산설비를 유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세이볼트 인터내셔널의 보고에 의하면, 이라크는 석유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기기술 즉, 원유저장고에 석유제품을 주입시키는 "water flooding" 방식을 통해서 석유생산 증가를 유지해왔다. 또한 '01. 7월 UN보고서에 의하면, 이라크의 석유생산시설은 기술적 및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Kirkuk지역의 생산량은 12개월 후면 50% 하락하여 50만bbl/d로 줄어들고, 남부 Rumaila지역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생산량이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라크는 대규모 신규유전 개발을 통해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현재 417개의 유전개발이 계획 중이며, 대부분 러시아, 중국, 이라크 및 루마니아 기업들이 유전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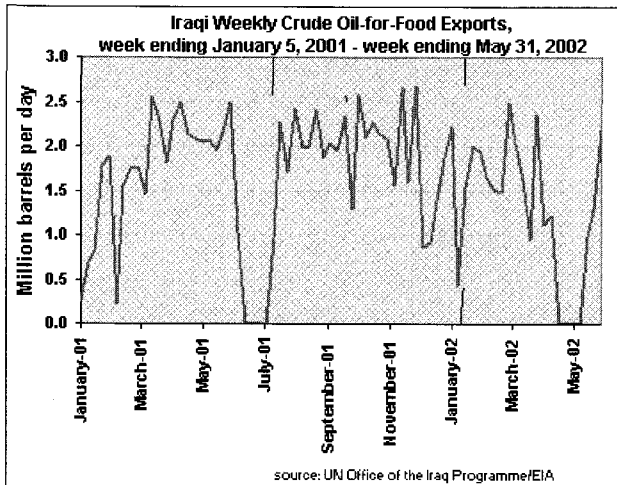
● 석유 수출

'95. 4월 채택된 'UN결의안986'은 6개월간 이라크에 일정금액의 원유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UN의 감시하에 이라크 국내 사용만을 위한 인도적 물자 구입용 (Oil-for-Food)으로 지출되고 있다. '99. 12월 이라크의 석유수출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UN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의 석유수출량을 제한하는 어떤 것도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02. 5. 30일 시작한 12번째 제재기간(Phase XII)은 '02. 11. 25일 종료되는데,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중목적"(dual-use) 상품목록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라크측에 "Oil-for-Food" 수입금을 이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물품만 구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Oil-for-Food" 수입금액의 3/4 정도는 인도적 물자 구입에 사용되고, 나머지 1/4은 걸프전 배상금, 터키로의 석유수출

〈이라크의 석유생산 및 소비〉

항 목	규모	년도
-확 인 매 장 량	1,125억배럴 · 이중 약750억배럴 미개발 · 잠재매장량은 2,000억배럴	2001
-생 산 량	1.99백만bbl/d · 2001년은 2.45백만bbl/d	2002.1-7
-생 산 설 비	28-3.0백만bbl/d	2002.10
-수 출 경 로	· Kirkuk-Ceyhan 파이프라인 (터키와 연결) · Mina al-Bakr 항구 (페르시아만) · 요르단, 터키 이용 트럭수송 · Kirkuk-Bainas 파이프라인 (시리아 지중해 항구, 밀수출) · 걸프만을 이용한 선박 밀수출	
-소 비 량	460,000bbl/d	2002
-순 수 출 량	1.5백만bbl/d · 미국 수출량: 566,000bbl/d (2001년: 795,000bbl/d)	2002.1-7
-정 제 시 설	417,500bbl/d	2002



통행료(터키는 이라크의 석유금수조치로 90년 이후 350억\$의 손해를 주장하고 있음), UN의 무기 감시활동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UN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01년 이라크의 석유순수출량은 약2백만bbl/d였으며, '02. 7월 1.5백만bbl/d로 하락했고, 그 이후는 더욱 떨어졌다. '02년 급락한 가장 큰 이유 두가지를 보면, 하나는 '02. 4월 이라크가 팔레스타인을 표면상 지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1개월간 석유수출을 중지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UN이 허용한 석유수출에 불법적인 "부가요금"을 부과하는 이라크의 관행을 저지하기 위한 UN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 그결과 '02년 2/4, 3/4분기 이라크의 석유수출량이 급락했으며, 최근에는 2백만bbl/d가 넘는 수준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라크 석유의 30% 정도는 러시아 기업들에게 수출된다. 나머지 70%는 사이프러스, 수단, 중국, 베트남 등 다수 국가의 기업들에게 판매된 다음 최종 이용자들에게 되팔린다. 예를 들어 '01년의 경우 바스라 경질유의 약80%, Kirkuk 원유의 30% 이상이 미국 기업들에게 공급되었다. '02년 처음 7개월간 미국은 이라크로부터 평균 566,000bbl/d의 석유를 수입했다.

'01. 10월말 UN 제재위원회는 이라크산 석유가

격 결정방식을 바꾸기 위해 소위 "소급방식 가격결정"(retro-active pricing) 메카니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유가변동에 편승하여 석유구입자들에게 사실상 부가요금(배럴당 0.3~0.6\$)을 물리고 있고, 이 돈은 UN의 통계를 벗어나 이라크 정부로 직접 들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했다. "소급방식 가격결정" 체계 하에서는 미국과 유럽으로 공급되는 이라크산 석유수출가격은 석유수송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시장전개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따라서 이라크산 원유가 선적되어 판매될 때까지는 "공식판 매가격"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노력은 불법 부가요금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이라크산 석유수출을 줄이게 만드는 부대효과도 얻게 되었다.

● 유전개발, 전쟁 및 현황

이라크의 남부지방 석유산업시설 즉 집하장, 압축/탈가스시설, 저장시설, 1.6백만bbl/d(걸프전 이전) 용량의 수출터미널, 1.4백만bbl/d(걸프전 이전) 용량의 이라크 남북을 잇는 송유관 등은 걸프전 때 파괴되어 '91년 중반에는 생산시설이 75,000bbl/d로 감소하였다. 전반적인 유전개발 계획은 쿠웨이트 침공 이후 중단되고 있으며, 기존 유전의 생산량 유지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UN의 對이라크 프로그램을 지휘하는 베네세반은 '02. 1월초 유전장비와 관련 UN의 광범위한 "통제"(holds)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프로그램 전체가 마비되는 위험에 직면했다고 주장하였다. 세반에 따르면, "통제" 규모가 거의 2,000건으로 50억\$에 이르며, 이중 약80%가 미국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다. "석유-식량 프로그램" 하에서 이라크는 지난 3년간 석유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 약12억\$의 장비를 구입하였다. 그에 따르면,

“석유-식량 프로그램” 하에서 소급방식 가격결정은 이라크산 석유수출과 收入의 감소를 초래했다.

● UN 제재 이후의 개발계획

'02. 10월 현재 이라크는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외국 기업들과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체방크의 집계를 보면, 신규 유전개발이 총380억\$에 이르고, 물론 확률은 낮지만 이 계약이 모두 성사되면 잠재적인 생산시설 규모가 4.7백만bbl/d에 이르게 된다. 전반적으로 이라크의 상류부문 계약들은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필요성이 실질하지만, UN의 엄청난 제재조치는 기업들로 하여금 실행에 나서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다. UN의 제재조치가 철회될 경우 석유생산 시설을 6백만bbl/d 이상으로 늘리기를 이라크는 희망하고 있다.

최근 이라크는 이태리(Eni), 스페인(Repsol YPF), 러시아(Tatneft), 프랑스(TotalFinaElf), 중국, 인도, 터키 등 다수 국가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라크는 “개발생산계약”(DPC) 방식의 일환으로 20% 정도의 유리한 수익률을 제시하여 외국기업들과 30여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라크는 '00년에 DPC계약 방식을 도입하여 이전까지 써왔던 “생산분배계약”(PSC) 방식을 대체하였다.

도이체방크의 추정자료에 의하면, 외국석유기업들이 이라크에서 계약을 성사시킨 규모가 전체적으로 신규 또는 기존유전 모두 합하여 약500억배럴에 이르며, 일일생산 기준 4백만bbl/d, 투자금액으로는 200억\$가 넘는다. 남부지역 유전개발은 인프라의 손상, 이란-이라크 전쟁시 매설된 지뢰, 습지대의 존재 등으로 쉽지만은 않다. 이라크와 주요 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는 TotalFinaElf(125억~270억배럴), 다수의 러시아 기업(합계 75억~150억배럴), 중국석유공사 CNPC(20억배럴), 이태리

Eni(20억배럴) 등이다.

● 석유수출 송유관/터미널

파이프라인, 항구, 가압설비 등 이라크의 석유수출 인프라가 이란-이라크 전쟁과 '91년 걸프전때 파괴되었다. Kirkuk-Ceyhan 간에 설치된 600마일, 40인치의 송유관이 현재 이라크가 가동할 수 있는 원유수출 루트이다. 이라크-터키간에 설치된 이 송유관의 시설용량은 110만bbl/d 이나 현재 90만bbl/d정도를 수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적 용량 50만bbl/d의 46인치 송유관이 나란히 건설되었는데, 이것은 바스라 표준油 수출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설비를 합하면 최대용량 150~160만bbl/d 규모가 된다.

'97년 17년만에 시리아와 관계를 정상화한 이라크는 '98. 8월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이라크 Kirkuk 북쪽 유전지대에서 시리아의 지중해 항구 도시인 Binas간에 연결된 50년된 낡은 송유관을 재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02. 10월 현재 이 송유관을 이용하고 있고, 대체 신규 송유관 건설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는 '75년 70만bbl/d의 쌍둥이 송유관, 즉 합계 140만bbl/d 용량의 “전략적 파이프라인”을 건설했으며, 이 송유관의 특징은 양방향으로의 원유수송이 가능하다. 남북을 연결하는 이 시스템은 페르시아만을 통해 북부지역에서 생산한 Kirkuk 원유를 수출할 수도 있고, 남부지역에서 생산된 Rumaila 원유를 터키를 통하여 선적하는 것도 가능하다. 걸프전 기간중 이 송유관의 보조설비인 5개의 가압장이 파괴되어 사용불능이 되었다. '01년 초 이라크 정부에서는 복구를 했다고 발표했으나, '01. 3월 UN 실사단의 보고에 의하면, 이 “전략송유관” 곳곳에 원유유출 현상이 일어나는 등 하류부문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라크는 페르시아만 지역에 3개의 탱크 터미널

이 있으며, 2개의 항구가 있는데, 이 항구들도 원유탱커 접안이 가능하도록 공사가 진행 중이다. 탱크 터미널은 걸프전때 상당부분 파괴되어 복구 중이며, 여기에 참여할 러시아 기업이 UN의 공식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 정 제 시 설

'02. 1월 현재 이라크의 정제시설 용량은 40만 bbl/d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라크는 걸프전 이전의 시설용량 70만bbl/d를 주장하고 있다. 정유공장은 10개로 모두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상당부분 걸프전 때 파괴되었으며, 현재 수처리시설의 문제로 경질제품의 부족, 저품질 휘발유 공급 및 오염수준 증가 등이 정유부문이 직면한 문제들이다. 제재조치 이후 정유시설 고도화와 신규 정유공장 건설을 위한 외국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천연가스산업

항 목	규모	년도
-확 인 매 장 량	109.8Tcf	2002
-생 산량/소 비량	111Bcf	2000

이라크는 확인매장량 110Tcf, 추정매장량 150Tcf의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매장 천연가스는 석유 생산시 함께 나오는 부수가스가 70% 이고, 非부수가스가 20%, dome 가스가 10%를 차지한다. '90년까지 이라크가 생산한 천연가스는 모두 부수가스가 었다. 이라크는 '79년 700Bcf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피크를 보인후 급속히 생산량이 줄어들어 '00년에는 111Bcf를 생산하였다. 이라크는 UN의 제재조치 해제후 2년 내에 550Bcf, 10년 내에 연간 4.2Tcf 수준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라크의 천연가스는 대부분 부수가스이기 때문에 석유생산의 증가는 가스 부문으로 직접 연결된다. 천연가스는 석유와 함께

생산되어 석유생산율을 높이기 위한 투입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라크 정책의 기본방향은 UN 제재 조치의 해제나 완화를 위해 노력해 주는 국가 예를 들어 프랑스, 중국, 러시아측 기업들에게 가스 및 석유 채굴권을 준다는 것이다. 러시아 기업들은 이라크 남부지역에 다수의 천연가스 생산 및 처리시설 건설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01. 8월 이라크 정부는 터키와 25억\$ 규모의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을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며, 가능하다면 터키를 거쳐 이라크산 천연가스를 유럽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이 경우 터키가 중요한 운송센터가 된다. 이라크는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으로의 천연가스 수출도 희망하고 있다.

전 력 산 업

항 목	규 모	년도
-설 비 용 량	9.5GW (화력 90%)	2000
-발 전 량	27.3BkWh	2000

이라크는 전력망의 85~90%와 20개의 발전소가 걸프전때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었다. '90. 12월 9,000MW의 발전설비가 '91. 3월에는 340MW로 감소되었다. '91년초 바그다드에 건설된 10개의 변전소와 400kV 송전망의 약30% 등 다수의 송전 및 배전시설도 파괴되었다.

UN 사무총장의 보고에 따르면, '00. 8월 현재 정전이 일상화된 이라크의 전력부족량은 1,800MW 었다. 이라크는 '90년에 가동 중지된 발전소 2기를 보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스위스, 프랑스, 러시아 기업들과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3,000MW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들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UN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미 요청한 15억\$ 규모의 전력장비 도입도 미국과 영국이 막고 있다고 이라크는 주장하고 있다.

(자료정리: 한국에너지협의회 이성룡 차장)